

먹고 살기 힘든데...서민 울리는 금융범죄 기승

10만% 살인이자 등 불법 사금융 다시 고개...광주 상반기 53명 검거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늘고 사이버 금융범죄 전년비 2배 이상 급증

가파르게 금리가 인상될 올 상반기 들어 불법 채권 추심과 살인적 대출 이자 등 불법 사금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낚아 올린 뒤 원금만 가로챈 유사수신 투자사기범 검거 사례도 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 모두 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죄 종류별로는 불법 사금융 28명, 유사수신·다단계 23명, 불공정거래 2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불법 사금융 관련 25명, 유사수신·다단계 관련 3명 등 모두 28명이 검거됐다. 검거 인원만 놓고 보면 갑절 가까이 늘어났다.

전국에서는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837건에, 2151명을 검거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불법 사금융이 516건, 1051명으로 가장 많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34% 증가한 수치다.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과 불법 다단계는 전국에 걸쳐 252건, 958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31%, 61% 증가한 수치다. 유사수신 범죄는 통상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한 뒤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 뒷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폰지사기' 수법을 쓴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유사수

신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 사금융 범죄는 크게 무등록대부업(대부업법 위반), 폭행·협박·감금 등 불법 채권추심, 이자제한법 위반(현재 연 20%) 사례 등을 가리킨다. 금리 인상기 또는 고금리 시기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 등이 주로 사금융에 의지하게 되고, 살인적 이자와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피해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달 선고된 광주지법 판결만 놓고 보더라도 불법 사금융의 폐해가 드러난다.

시민 A씨는 2017년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5000만원을 빌리고 2021년 7월까지 매월 이자만 250만원씩 갚아왔다. 당시 법정 최고 이율은 25%로 제한됐지만, A씨는 연 60%의 살인적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4만원을 빌리고 188차례에 걸쳐 이자로만 모두 2650만원을 갚았다. 적용된 이

자율은 무려 10만%가 넘었다. 살인적 이자를 부담했지만, 채무 상황이 늦어지면 수시로 협박을 당했다.

불법 사금융 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금융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경찰청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 금융범죄 사건과 관련해 모두 83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사이버 금융범죄 중에선 가족을 가장해 휴대전화 가 가장 낚고 문자를 보낸 뒤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내 예금 등을 가로챈 이른바 '메신저 피싱' 검거 피의자가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이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 단속을 이어가면서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목포시체육회 5억 횡령 경찰, 회계담당자 수사

목포시체육회에서 5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1일 "목포시체육회로부터 체육회 내 횡령 사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목포시체육회는 횡령 의혹의 당사자로 체육회 소속 회계담당자를 지목하면서 이 담당자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목포시에서 받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각종 보조금과 자체 운영비 등 4억8000여 만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제기했다.

목포시체육회 안팎에서는 횡령금액이 10억원을 웃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경찰 수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금액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회 사무국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체육단체 상급기관인 전남도체육회에 횡령 사건을 통보해 목포시체육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횡령 금액과 별도로 시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특별 감사를 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새벽 편의점 직원 살해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새벽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흥기로 점원을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2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백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은 이러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단 1회의 가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살해했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새벽 광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B(23)씨를 흥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들녘에 울려 퍼지는 서창 만드리 풍년제 전통 농경문화 유산인 들노래와 감매기를 재현하는 제24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가 2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서창동 세동마을 들녘에서 열렸다. /나영주기자mjna@kwangju.co.kr

파업 광주·전남전기노조 한전 본사 앞서 고공농성 불법하도급 척결 등 촉구

4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나누시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2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자부에 따르면 이경석 지회장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나누시 한전 KDN 본사 앞 교통관제 철탑에 올라가 농성에 돌입했다.

전기자부는 이와함께 이날 오후 한전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22일에는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기자부는 지난달 8일 ▲한전 협력업체 불법하도급 척결 ▲전국평균임금 보장 ▲하계 유급휴가 3일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고공 농성을 이어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기자부는 "지난 19일 노동청의 중재로 이뤄진 마라톤 협상에서 임금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측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한전이 실질적 이익의 귀속자라는 점에서 직접 나서 갈등을 중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측은 지난 18일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난 한전 협력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파트 품격 위해 화물차는 뒤쪽에 주차를" 광주 한 입주민이 차주에게 황당 쪽지 '공분'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화물차에 '아파트 품격 떨어진다. 뒤쪽에 주차하라'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있었다. '황당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화물차가 아파트 품격 떨어뜨린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 A씨에게 문의한 결과, 광

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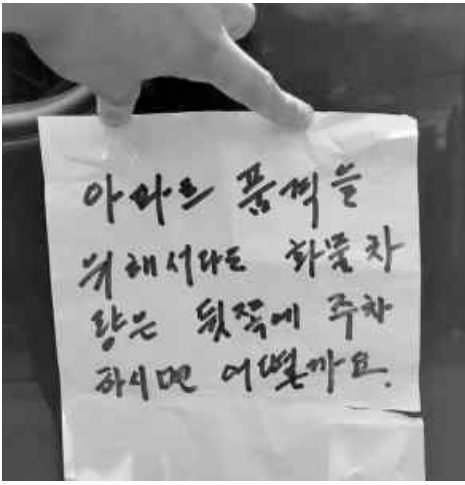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화물차를 운전하려다 차 문에 꽂혀있는 쪽지(사진)를 발견했다고 한다. 쪽지에는 "아파트 품격을 위해서라도 화물차량은 뒤쪽에 주차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사연은 쪽지와 1t 화물차를 찍은 사진을 담은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A씨는 "불법 주차를 하거나 다른 자리(주차선)를 침범하지 않았다"며 주차장에 주차한 사진까지 게시글에 첨부했다. A씨는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니 사각지대로 들어와 쪽지를 넣어 놓고 갔다"며 "서러워서 이사할까 고민이다"는 글도 남겼다.

황당 사연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그 집) 아파트는 금으로 지었나요" "저런 쪽지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뭐가 품격이 있다는 건지" "이사는 쪽지를 쓴 사람이 가야 한다"는 등 '쪽지 작성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투자자 모심

1. 자금 - 10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주식회사 오 천
H. 010-3605-5000

신안동, 대인동, 땅, 매매

- 1.新安동 176평, 대인동 15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300만원 정도 수입중
4. 매매 - 평당 1200만원씩, 조정가

문의. 010-3605-5000